농촌노인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양순미*, 홍성례, 강경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1. 서언

스트레스는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의 일부로서 모든 사람들은 크든 작든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도 않으며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생활도 아니다. 문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 하느냐가 주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들과 스트레스원(stressor)에 대한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Holmes와 Rahe(1967)는 생활사건과 스트레스 개념을 연결시켜 개인생활에 변화와 적응이 요구되는 긍정적, 부정적 사건 모두가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는 가정하에 스트레스를 측정하였으며 심리적, 정서적 의미보다는 평형상태의 변화를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여러 선행연구(곽정호 외 4인, 1993 ; 서현미·유수정·하양숙, 2001 ; 윤현희·김명자, 1994)에 의하면 노인은 생활사건과 일상의 혼란 뿐만 아니라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노인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생활사건은 최근의 신체적인 변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족관계 영역에서 일어난 생활사건이나 변화가 노인에게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서현미 등, 2001 ; 윤현희 등, 1994 ; 정혜정, 1998 ; 김춘길 · 성명숙, 2002).

그런데 노년기에 노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노화로 인한 변화와 사회적 변화로 인한 생활사건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우며, 중년기를 위한 스트레스척도로 노인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은 내용타당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서현미 등, 2001)고 지적된다.

외국에서는 노인의 가족과의 일상생활 또는 노년기라는 새로운 발달단계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알고자 하여 이를 측정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노인을 위한 스트레스 측정도구(LOPES, TESI)가 개발되었고 이를 토대로 노인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신체노화 및 일상활동 영역과 사회심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따른 노인의 스트레스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척도구성

스트레스 척도는 서현미 등(2001)이 개발한 35문항의 척도를 예비조사를 통해 내용타당도와 변별력 등을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완성된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eigenvalue와 scree plot을 참조하여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1개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각 문항은 없음(1)에서 부터 아주 심함(5)까지 5점 Likert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척도 전체의 Cronbach α는 .88, 신체적영역의 Cronbach α는 .88, 사회심리 및 가족관계영역의 Cronbach α는 .83이다.

노인이 인지하는 학대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이계탁(2001), 이선이(1998), 이주성(2001)등의 척도에서 변별력과 내용타당도 등을 예비조사를 통해 검증한 뒤에 최종적으로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eigenvalue와 scree plot을 참조하여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없음(1)에서 부터 아주 심함(5)까지 5점 Likert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척도 전체의 Cronbach α는 .93, 언어 및 정서적 영역의 Cronbach α는 .92, 경제적 영역의 Cronbach α는 .82, 신체적 영역의 Cronbach α=.93 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척도를 6문항으로 간략하게 축약시킨 Abbey와 동료들(1992)의 것을 다시 신뢰도 분석을 통해 총 4문항으로 구성한 이경희(1998)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상담요구정도, 경제적인 여건, 신체적인 건강은 5점 서열형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연령과 농작업활동시간은 개방형으로 구성하였다. 학력, 종교, 가정생활어려움, 괴롭히는 사람, 노년기 활동태도 등은 명목형으로 구성하였다.

(2) 조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대상은 65세~80세의 농촌노인이다. 계통추출된 전국 187개 농촌생활지표 조사마을 중에서 50개 마을을 다시 계통추출하여 선정한 뒤, 조사마을당 거주형태와 성별[5]에 따라 6명씩 비례할당하여 총300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03년 6월 25일에서 7월 10일까지 농촌생활연구 현지조사 모니터요원에 의해 설문면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

5) 혼자 사는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 각 1명씩, 노인부부만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 각 1명씩, 자녀들과 함께 사는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 각 1명씩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최종분석에는 총 297명의 자료가 이용되었으며, SAS 통계팩키지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량(빈도, %, 평균값)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여성 노인이 전체의 49.49%이고, 남성 노인이 50.51%이다. 연령은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평균 70.64세이고, 남성 노인은 72.41세로 남성 노인이 약 2세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거의 과반수 정도가 무학이었고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의 무학비율이 더 높았으며, 중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은 남성 노인의 경우 16.32%이나 여성노인은 단지 4.08%에 불과해, 본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의 배우자 유무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노인의 42.86%와 남성 노인의 53.33%가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어, 유배우자 비율이 남성 노인의 경우 과반수 이상으로 여성 노인에 비해 높았다. 종교 유무에서 노인의 과반수 이상이 종교가 있으며,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의 경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 표 1 >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N=297)

구분	여성 노인	남성 노인	전 체	
	n(%)	n(%)	n(%)	
연 령 (평균연령 : 여성-70.64세 남성-72.41세)	65세-70세	80(54.42)	60(40.00)	140(47.14)
	71세-75세	40(27.21)	51(34.00)	91(30.64)
	75세-80세	27(18.37)	39(26.00)	66(22.22)
	계	147(100.00)	150(100.00)	297(100.00)
교육수준	무학	91(61.90)	52(35.38)	143(48.64)
	초등학교	50(34.02)	71(48.30)	121(41.16)
	중학교	5(3.40)	10(6.80)	15(5.10)
	고졸이상	1(0.68)	14(9.52)	15(5.10)
	계	147(100.00)	147(100.00)	294(100.00)
종 교	있 음	106(72.60)	67(44.97)	173(58.64)
	없 음	40(27.40)	82(55.03)	122(41.36)
	계	146(100.00)	149(100.00)	295(100.00)
배우자 유무	있 음	63(42.86)	80(53.33)	143(48.15)
	없 음	84(57.14)	70(46.67)	154(51.85)
	계	147(100.00)	150(100.00)	297(100.00)
경제적 수준	곤란함	36(24.83)	33(22.00)	69(23.39)
	보 통	88(60.69)	94(62.67)	182(61.69)
	넉넉함	21(14.48)	23(15.33)	44(14.92)
	계	145(100.00)	150(100.00)	295(100.00)

신체적 건강수준	건강하지 않음	85(57.82)	65(43.92)	150(50.85)
	보 통	40(27.21)	52(35.13)	92(31.19)
	건강함	22(14.97)	31(20.95)	53(17.96)
	계	147(100.00)	148(100.00)	295(100.00)

* 결측치로 인해 각 변수별로 사례 수가 다를 수 있음

훨씬 더 높았다. 경제적인 여건은 보통 또는 넉넉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61%, 곤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39%로써 응답자의 약 1/4정도가 경제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농촌노인들의 농번기 농작업시간은 평균 7.55시간(S.D. 3.61)이었으며, 농한기 농작업시간은 평균 3.21시간(S.D. 2.32)이었다.

(2) 농촌노인의 스트레스 및 관련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

응답자의 약 60%는 농사등 해오던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활동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노인들은 노년기 활동이론 중에 전반적으로 지속이론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정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응답자중 약 39%가 자신의 건강문제를 들고 있었다. 노인자신을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32%가 있는 것으로 대답했고, 이들 중에 약 46%는 아들이 학대자인 것으로 응답했다(표 2).

< 표 2 > 스트레스 관련변인들의 빈도분석 (N=297)

변 인	집 단	n	%
노년기 활동태도	쉬고 놀이나 즐기면서	103	35.52
	농사등 해오던 일을 계속하면서	173	59.66
	새로운 일을 개발하여 그 일을 하면서	14	4.82
	계	290	100.00
가정생활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72	24.33
	집안 일 수행상의 어려움(식사,청소)	33	11.15
	자신의 건강문제	114	38.51
	가족원의 건강문제	31	10.47
	기 타 (고부관계, 재산문제 등)	12	4.05
	없 음	34	11.49
	계	296	100.00
노인을 괴롭히는 자	아 들	43	46.23
	며느리	13	13.98
	배우자	13	13.98
	기 타	24	25.81
	계	93	100.00

* 결측치로 인해 각 변수별로 사례 수가 다를 수 있음

상담에 대한 요구정도는 평균 3.25수준으로 보통을 약간 웃돌았으며, 자아존중감은 평균 3.10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농촌노인이 인지하는 총체적인 학대수준은 평균 1.54이며, 언어 및 정서적 영역(1.66))은 경제적 영역(1.37)이나 신체적 영역(1.27)에 비해 학대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렇게 전반적으로 낮은 학대수준은 아직까지는 노인들이 학대받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정서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촌노인의 총체적인 스트레스 수준은 2.18이었으며, 신체노화 및 일상생활 영역의 스트레스(2.52)가 사회심리 및 가족관계 영역의 스트레스(1.9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러 선행연구(곽정호 외 4인, 1993 ; 윤현희·김명자, 1994)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표 3).

< 표 3 > 스트레스 및 관련변인들의 평균 빈도분석 (N=297)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최저~최고값
상담에 대한 요구정도		3.25	1.04	1~ 5
자아존중감		12.41(3.10)	2.75	5~20
학대 수준	총체적 수준	23.14(1.54)	9.59	15~68
	언어 및 정서적 영역	16.61(1.66)	7.42	10~49
	경제적 영역	4.01(1.37)	1.86	3~13
	신체적 영역	2.53(1.27)	1.38	2~ 8
스트레스 수준	총체적 수준	52.39(2.18)	14.79	24~96
	사회심리 및 가족관계 영역	27.20(1.94)	9.42	14~57
	신체 및 일상생활 영역	25.19(2.52)	7.07	10~44

* 평균의 ( )의 수치는 각 점수를 문항 수로 나누어 5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임

(3) 농촌노인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농촌노인의 스트레스에는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동시투입식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회귀분석 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1.53~1.75이었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분산확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을 확인한 결과 모두 2.5이하로서 회귀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변인들의 농촌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총체적인 스트레스의 경우 전체 변량의 44%(Adj R^2 : 38%), 사회심리 및 가족문제 영역의 경우 전체변량의 44%(Adj R^2 : 38%), 신체노화 및 일상활동 영역의 경우 전체변량의 29%(Adj R^2 : 38%)를 설명하고 있었다.

총체적인 스트레스에 가장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농한기 농작업시간(β=.38)이었으며, 다음은 노인이 인지한 언어 및 정서적인 학대(β=.37), 가정생활어려움 유무(β=.20), 교육정도(β=-.17), 상담요구정도(β=.13) 순서 이었다. 사회심리 및 가족문제 영역에 가장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노인이 인지한 언어 및 정서적인 학대(β=.40)이었으며, 다음은 농한기 농작업시간(β=.38), 가정생활어려움 유무(β=.17), 상담요구정도(β=.15), 교육정도(β=-.14) 순서 이었다. 신체노화 및 일상활동 영역에 가장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농한기 농작업 시간(β=.31)이었으며, 다음은 노인이 인지한 언어 및 정서적인 학대(β=.24), 가정생활 어려움 유무(β=.17), 농번기 농작업시간(β=-.20), 교육정도(β=-.17) 이었다.

< 표 4 > 하위영역별 농촌노인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구분 / 독립변인	총체적인 스트레스	사회심리/ 가족문제 영역	신체노화/ 일상활동 영역
	B(β)	B(β)	B(β)
거주가구 유형	3.95(0.12)	3.12(0.15)	0.84(0.06)
성	-3.85(-0.13)	-1.99(-0.10)	-1.86(-0.14)
배우자유무	-1.52(-0.05)	-0.41(-0.02)	-1.11(-0.08)
연령	0.13(0.04)	0.05(0.03)	0.08(0.06)
교육정도	-3.23(-0.17)**	-1.78(-0.14)*	-1.44(-0.17)*
경제적 수준	-1.88(-0.10)	-1.33(-0.11)	-0.54(-0.06)
신체적 건강	0.03(0.00)	0.14(0.01)	-0.11(-0.02)
종교유무	-0.78(-0.03)	0.23(0.01)	-1.01(-0.08)
농번기 작업시간	-0.53(-0.13)	-0.15(-0.06)	-0.38(-0.20)*
농한기 작업시간	2.38(0.38)***	1.52(0.38)***	0.85(0.31)***
노년기 활동 태도	1.22(0.03)	0.47(0.02)	0.76(0.05)
자아존중감	-0.04(-0.01)	-0.07(-0.02)	0.03(0.01)
가정생활어려움 유무	9.57(0.20)**	5.39(0.17)**	4.18(0.20)**
괴롭히는자 유무	0.31(0.01)	0.20(0.01)	0.11(0.01)
상담요구 정도	1.99(0.13)*	1.49(0.15)*	0.50(0.07)
언어·정서적인 학대	0.72(0.37)***	0.51(0.40)***	0.21(0.24)*
경제적인 학대	0.88(0.10)	0.50(0.09)	0.37(0.10)
신체적인 학대	-0.22(-0.02)	-0.19(-0.03)	-0.02(-0.00)
Intercept	21.61	7.25	14.36
F Value	7.14***	7.32***	3.69***
R^2(Adj R^2)	0.44(0.38)	0.44(0.38)	0.29(0.21)
Durbin-watson D	1.61	1.53	1.75

거주가구유형 : 독거(1), 동거(0)　　성 : 여성(1), 남성(0)

배우자 유무 : 있음(1), 없음(0)　　종교 유무 : 없음(1), 있음(0)

가정생활 어려움 유무 : 있다(1), 없다(0)　　괴롭히는자 유무 : 없다(1), 있다(0)

요약하면 농한기 농작업시간, 언어 및 정서적 학대, 가정생활어려움 유무 변인은 정적으로, 그리고 교육정도 변인은 부적으로 총체적 및 모든 하위영역에서 농촌노인이 인지한 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이외에 상담요구정도는 총체적인 스트레스, 사회심리 및 가족문제 영역에서만 정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고, 농번기 농작업 시간은 신체노화 및 일상활동 영역에서만 부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4. 논의 및 결론

농촌노인의 신체노화 및 일상활동 영역의 스트레스가 사회심리 및 가족관계영역의 스트레스보다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곽정호 외 4인, 1993 ; 윤현희·김명자, 1994)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적·심리적인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이러한 것이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농촌노인들에게 노년기의 신체적인 변화인 노화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농촌노인의 교육정도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적효과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에 의하면 농한기 농작업시간이 길 수록 총체적인 스트레스, 사회심리 및 가족문제 영역, 신체노화 및 일상활동 영역의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농번기 농작업 시간이 길수록 신체노화 및 일상활동 영역의 스트레스는 낮았다. 이는 농한기에 농작업 활동시간이 긴 경우, 이러한 활동이 노년기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적응능력의 범주를 벗어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이 사회심리 및 정서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어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농번기에 농작업 활동시간이 짧은 경우, 이는 고령이거나 신체적인 제약을 가짐에 따라 농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노인들의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신체노화 및 일상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이 영역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에 의하면 언어 및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수록, 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 수록,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는 한국노인의 전화에 걸려온 상담사례중 상당 부분은 가족간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소외,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보고내용(현외성, 1998)이나 가족관계 영역에서 일어난 생활사건이나 변화가 노인에게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는 여러 선행연구(서현미 등, 2001 ; 윤현희 등, 1994 ; 정혜정, 1998 ; 김춘길과 성명숙, 2002)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심리적인 복지서비스나 정책은 가족의 맥락에서 가족을 단위로 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곽정호 · 송진한 · 하종성 · 배철영 · 신동학(1993). 가족생활주기별 스트레스량 측정 및 생활사건의 내용분석에 관한 고찰. 가정의학회지, 제14권 8호, 614~626.

김춘길 · 성명숙(2002).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건강개념과 가족지지 변수를 중심으로. 기본간호학회지, 제 9권 1호, 133~143.

서현미 · 유수정 · 하양숙(2001). 노인스트레스 측정도구(SESS)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 31권 1호, 94~106.

정혜정(1998). 여성노인의 스트레스원과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 18권 3호, 74~89.

윤현희 · 김명자(1994). 남녀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적응감 연구. 한국노년학, 제 14권 1호, 17~32.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계탁(2001).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선이(1998).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주성(2001).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현외성 · 조추용 · 박차상 · 김혜경 · 김용환(1998). 노인상담-이론과 실제. 유풍출판사

Abbey, A., Andrews, F. M., & Holman, L. J. (1992). Inferti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 The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internal control and interpersonal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2), 408~417.

Holmes, T.H., & RAhe, R.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